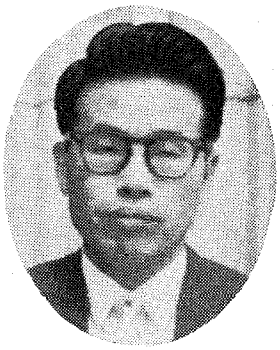
借款企業의 問題點



高麗大學校商科大學長
經濟學博士
宋 基 澈

1. 問題의 提起

우리는 多事多難했던 1968年을 보내고 다시 多事多難할 것이 豫想되는 1969年을 맞게 되었다. 經濟는 하나의 連續的 現象이기 때문에 1968年에 이러났던 經濟問題中에서 아직도 많은 問題가 未解決의 章으로 1969年에 移越되어 解決을 기다리는 問題中에서 가장 큰 問題中의 하나가 借款企業의 問題라 할 수 있다.

그 規模에 있어서나 業種 輸出入上의 位置 政府의 支援度 그리고 總體的인 立場에서 본 國民經濟上地位로 보아서 韓國의 借款企業은 韓國의 「에리트」企業으로 일커러 질 位置에 있음은 明明하다. 그러나 이 借款企業은 外見上의 華麗함에도 불구하고 그 內面에는 經濟上으로나 國民經濟上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어서 最近에는 一部이기는 하지만 「問題企業」이란 不名譽스러운 이름으로 問題化되고 있는 現實에 있다.

도리켜 보건데 1968年 9月 1日 現在 325件에 13億 7,574萬弗에 달하는 外資導入(財政借款 62件 4億 6,524萬弗, 商業借款 165件 8億 2,573萬弗, 外國人投資 98件 8,477萬弗)이 이루어 졌고 이것이 生產, 輸出, 雇傭, 技術向上, 聯關產業의 振興 등 乘數效果의 波及으로 최근 몇年間에는 10%內外의 高度成長의 繁榮時代를 招來한 것이다. 이것은 또 從來에 이 땅에 低迷하고 있었던 依存的 墮性의 止揚, 內向的 施策性向을 脫皮하여 國際經濟社會에 積極參與함과 아울러 實利感을 바탕으로 하여 對外競爭에 눈을 떠서 自立意識으로 武裝시키는데 利點이 있었음은 事實이다.

그러나 또 他面에 있어서 이와 같이 莫大한 外資導入과 借款企業의 設立은 이 땅의 여러 經濟風土와 아울러서 많은 問題點을 提起하고 있다. 그것을 생각나는대로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들 製品의 市中價格이 輸入價格보다도 월등히 비싸다는 高價性,

② 輸出을 條件으로 한 것이 全量 또는 相當量이 國內市場으로 파고 들어 오는 輸出脆弱性,

③ 國際經濟單位에 훨씬 未達하는 經濟單位未達性,

④ 自己資本比率이 극히 낮다는 自己資本過少性.

⑤ 自己資本의 不足에서 오는 負債의 過重性,

⑥ 負債의 過重性에서 오는 高金利負擔性.

⑦ 施設의 低稼動性,

⑧ 製品의 販賣不振性,

⑨ 原料의 高度海外依存性,

⑩ 獨占 또는 寡占에 의한 獨寡占性,

⑪ 元利金償還能力의 脆弱性등을 들 수 있다.

借款業體의 性質과 그 體質 如何에 따라서 이들 特性中 하나나 또는 둘 혹은 그 以上의 特性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 여러가지 類型이 있으나 이들 類型中에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은 ⑩의 獨寡占性의 企業으로서 ③의 國際經濟單位未

達로 市中價格보다 훨씬 비싼 ①의 特性을 지니면서 ⑪의 元利償還의 脆弱性을 露出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借款企業體가 이에 該當되는 것이 아님은 더말할 必要도 없다.

그런데 1968年의 經濟問題를 移越 받은 政府는 1969年에 드러오자마자 곧 財務部次官을 委員長으로 하는 金融管理委員會를 構成하고 主로 外資導入業體 및 銀行貸出業體中 問題가 되고 있는 不實企業體에 대한 綜合的인 整理方案을 檢討하고 지난 처음의 會議에서 우선 PVC 業界에 대해서 企業合併을 勸告한 일이 있음으로써 더욱 더 借款業體管理의 問題가 注目을 받게끔 되었다. 이에 本稿에서는 이 借款問題業體를 檢討해 보고 그의 改善方向을 模索해 보자는데에 目的이 있는 것이다.

2. 現 況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1968年 9月 1日 現在 325件에 13億餘弗의 外資導入이 있었고 또 認可된 事業이 122件에 4億 6,787萬弗로 되어 있어 今後에도 外資導入額은 增加될 趨勢에 있고 그 質로 보아 與件이 가장 不利한 商業借款, 財政借款, 그리고 投資事業의 順으로 額數가 많이 導入되어 있다는 데에 問題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 外資導入에 의해 設立된 大部分의 企業은 金融支援, 稅制上의 厚待, 貿易코타面의 補塡, 支援施設 그리고 海外出張便宜등의 積極的 支援을 받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韓國生產性本部에 의하면 42% 以上이 獨寡占品으로 거의 모두가 國際單位未達로 되어 있고, 價格面에 있어서 150~300%나 高價임이 指摘되고 있다. 물론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大企業이 大部分 借款企業이고 그것이 또 獨寡占業體로 되고 그들 製品이 品質과 價格面에 있어서 不利하다는 데에는 그대로의 理由가 있는 것이다. 즉

첫째, 우리의 企業은 그의 歷史가 짧고 資本蓄積이 적고 따라서 金利負擔이 지나치게 많다. 이것은 지난번 國稅廳에서 發表한 業種別 支給利子比率表에서 볼 수 있듯이 支給利子를 所得對比로 보면 最高는 水產業의 74.24%에서 最下는 保險業의 0.97% 製造業은 63.24%로 되어있고 平均은 45.80%로 나와 있다. 이들 支給利子도 모두 販賣價格에 加算되지 않으면 아니되는 우리 現實이 더욱 우리 製品의 販賣價格을 높이는 理由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둘째로 寄附接待費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도 所得對比에 있어서 金融業이 最高인 51.71%에서 電氣깨스業의 0.44%로 되어 있고 製造業은 25.8% 平均 19.31% 라는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 資料가 어느정도의 正確性을 갖었느냐에 대해서는 相當히 問題가 있기는 하지만 國稅廳에 의한 資料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正確性이 있는 資料인데 寄附接待費가 이렇게 많아야 하는 우리의 經濟風土가 問題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말할것도 없이 위에서의 支給利子中 假裝私債로 또 寄附接待費에 있어서 그 限度額까지 粉飾될 餘地가 多分히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는 것이다.

세째로 借款業體의 경우 그 元利金의 償還은 하나의 絕對的 要件으로 된다. 이 要件을 充足시키기 위해서 자연히 이들 元利金을 償還할 수 있도록 充分히 厚하게 價格을 매겨야 하는 傾向이 있다는 것이다.

네째로 元利金償還問題와 關聯하여 우리의 市場이 狹小하기 때문에 또 適正한 經濟規模를 維持하기 위해서는 自然히 獨占 또는 寡占企業으로 되는 傾向이 뚜렷하다.

다섯째로 借款企業體가 元利金償還을 充分히 할때 까지에는 자연히 그에 대한 激甚한 競爭을 어느 程度는 抑止해 주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 保護關稅, 投資控除, 減免稅, 輸入抑止, 優待金融, 現金借款, 外貨貸付, 後取擔保, 輸送便宜등 여러 特惠的 支援策을 講究하여야만 했었기 때문에 借款企業의 業種·業體選定 規模策定 등으로 보아 獨寡占業體로 되기 쉬웠고 또 價格面이나 品質面 그리고 다른 여러面에서 많은 優待를 받지 않으면 아니될 背景이 있었다.

3. 問題點과 그의 改善方向

이 借款企業과 關聯하여 생각되는 問題點으로는 우선 생각나는 것을 列擧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다.

첫째로 事業選定이란 問題이다. 지금 筆者가 實業界人士들과 接觸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들이 지금 第一苦惱하는 것의 하나는 어떤 事業을 하여야 할 것이냐의 業種選定에 가장 腐心하고 있다. 물론 이 業種選定은 任意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現實的으로는 많은 資金을 必要로 하는 것이고 借款과 關聯되기 때문에 이 業種選擇은 自然히 하나의 特權으로 되기 쉽고 또 政府에 의한 業種選擇은 그의 規模等과 더불어 그 適正性與否는 經濟發展과 企業發展에 重大한 始發的 要因으로 될 것이다. 따라서 이 業種選定에 있어서 좀 더 科學性과 愼重性, 綜合性을 가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로는 外資의 質과 量에 관한 適正量의 問題이다. 우리가 借款으로 받어드리는 外資가 그 量에 있어서도 또 그 質에 있어서 適正한 것이냐 하는 問題를 檢討할 必要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一般的으로 흐르는 風潮는 外資만 導入하면 致富할 수 있다는 그릇된 幻想에 사로잡혀 外資神話가 판을치고 있기 때문에 그의 質을 생각지 않고 導入하려고 하며 또 이와같은 傾向이 韓國 사람은 外資로 工場을 짓는 것은 洋服하나 마추는 程度로 간단히 생각한다는 外國人의 評까지 받게 되었다. 이와같은 外資에 대한 安易한 態度는 借款額을 굉장히 높이고 있으며 또 有利한 借款條件보다도 不利한 借款 條件의 것이 점점 많어지는 傾向에 있음은 自戒하여야 할 態度가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로 元利金의 償還能力問題이다. 지금 우리 經濟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問題의 하나는 國際收支의 結果에 의한 外貨事情이라 할 수 있다. 筆者의 實業界 人士와의 接觸에 의하드라도 實業界 人士들이 가장 關心을 갖는 것의 하나가 바로 外貨事情인데 個別企業으로서도 償還能力의 問題는 큰 것이라 아니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月 21日에 發表된바에 의하면 產銀 및 市中銀行의 管理企業體가 몇年前의 20餘個에서 55個業體로 增加하고 있는 事實은 간단히 看過할 수 없는 우리의 現實이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이들 55個業體가 무두 借款業體로 생각되지는 않으나 그 大部分이 借款業體으로 생각할 때 元利金償還이 絕頂에 到達할 70年代에 있어서의 外貨事情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매 이들 業體의 償還能力도 또한 걱정이되지 않을 수 없다. 償還能力에 대한 事前의 嚴格한 檢討 이것도 再三 檢討되어야 할 問題가 아닐까 생각한다.

네째는 支拂保證의 問題이다. 모든 借款이 政府의 支拂保證이나 또는 銀行의 支拂保證을 한다는 것도 또한 問題이다. 이와 같이 莫大한 金額에 대한 支拂保證은 그렇게 함부로 할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再檢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政府支拂保證이나 銀行의 支拂保證을 相對便이 要求하고 있다는 事實 그리고 事業을 迅速하게 하기 위해선 이런 일은 不可避한지도 모른다. 그러나 또 한便에 있어서 經營이 잘못되어 償還이 제대로 되지 않었을 경우에 그 責任을 一般國民에 歸屬시킨다는 것도 또한 考慮되어야 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섯째는 國際經濟單位(技術, 市場, 資本 등)의 問題이다. 그간에 우리나라 經濟成長을 主導해온 企業 즉 基礎產業내지 基幹工業을 이르킨 外資企業들이 한결같이 資本組織 企業經濟 工場規模 市場性, 技術管理面에서 볼때 어느 하나도 生產性이나 國際競爭力에서 近代企業다운 長點이나 勝點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 指摘되고 있다. 이와같은 脆弱性을 가진 企業과 經濟體質밑에서는 指續的인 生產力이나 自立基盤을 構築은 한갖 虛構的인 것으로 이런 企業 또한 不實企業·問題企業으로 登場함에 이르렀다. 政府는 이들 不實借款業體들에게 그의 國際經濟單位로의 構築을 위해서 經濟企劃院은 借款企業을 事後管理에 焦點을 두고 있으며 財務部는 企業整備對策案을 構想하고 있는듯 하다. 이를 위해서 政府는 現金借款을 통한 所要內資支援 借款貸主 또는 外國資本과의 合作投資推進, 銀行

貸出金의 出資轉換, 企業規模擴大 및 施設改善, 關稅調整, 企業統合 또는 整理, 株式의 賣却, 株式讓渡에 의한 經營主體變更, 施設의 他用途轉換등의 對策을 考慮하고 있다.

苦干의 例外企業을 除外하고서는 거의 모든 우리 借款企業이 國際水準에 未達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의 責任은 政府와 借款企業家들에 있음은 더 말할 必要도 없다. 우리의 여러 與件이 어렵기는 하지만 왜 國際水準以下의 經濟單位로 이를 許可했으며 또 企業家는 이를 推進했느냐 말이다. 물론 거기엔 相當한 理由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狀態가 現實로 되었으니 만큼 위에서 指摘한 여러까지 對策에 의해서 早速한 時日內에 國際經營單位에로의 水準向上에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企業은 어디까지나 살려야 하는 方向으로 政策方向이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企業을 만든 經營者를 지나치게 두둔하는 政策은 止揚되어야 한다. 그는 自己의 經濟行爲에 대해서 責任을 져야 하고 스스로도 그가 저지른 社會的 犯罪에 責任을 지고 깨끗하게 물러나야 하는 經濟風土가 助成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獨寡占防止라든가 企業의 地方分散이란 美名아래 또 企業家 個個人에 대한 恩賞的 性格을 가지고 무턱대고 많은 사람에 小規模企業으로 安配하려는 政策은 이제 果敢하게 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諸特惠의 程度와 限度의 問題이다. 原理原則으로 말해서 借款業體는 이를 資本市場 技術管理 모든 面에서 無難히 自力으로 消化할 수 있는 사람에 許容되어야 할 것이며 萬一 그것이 不可能할 때에는 國家가 이를 하야 株式拂下의 形式으로 拂下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보아 우리에겐 아직 그러한 有能한 企業家가 적고 또 國家가 했을 경우의 非能率性으로 보아 現在에는 어떤 個人이나 團體에 이러한 企業設立運營이 여러 特惠를 주어가면서 勸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無限하게 特惠를 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程度에서 그것에 부레이크가 加해져야 하고 또 어떤 時日에는 끝맺어야 할 것이다. 이 點에 政府가 企業家로 充分한 自覺과 覺悟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곱째는 適正한 價格과 品質의 問題이다. 이 問題에 대해서는 이미 言及한바 있지만 지나친 高價性과 品質의 粗惡性은 排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여덟째로는 事業의 轉換性(Innovation에 따르는)이다. 어제의 有力產業이 오늘의 有力產業이 될 수 없으며 오늘의 有力產業이 明日의 有力產業이 될 수도 없다. 急激한 Innovation에 의해서 產業社會는 急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어제의 有力產業이 Innvation을 無視하고 오늘의 有力產業으로 導入되어 不實企業으로 되고 있는 例는 許多한 것이다. 이에 대한 配慮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홉째로는 借款企業의 公開化의 問題이다. 위에서도 指摘한바 있지만 借款企業은 國家가 이를 가장 良心的 事業的으로 設立하야 그의 株를 公開해서 拂下하는 것이 良策일 것이다. 이때에도 어느 特定人에게 하느니 보다는 一般大衆에 대한 公開가 이루어져야 함은 더말할 必要도 없다.

열번째는 借款商品의 流通經濟의 問題이다. 이들 商品의 가장 合理的인 流通經濟가 마련되어야 함은 더말할 必要도 없다.

열한번째로는 消費者保護의 問題이다. 一般的으로 借款企業을 中心으로 獨寡占業體로 形成되게 마련이며 이는 自然히 消費者의 保護가 소홀히 되게 마련이다. 그들에 의한 消費者의 保護야말로 또한 切實한 것이다.

위에서 생각나는 대로 借款業體의 問題點을 羅列하였다. 시멘트 工業의 全企業도 모두 借款業體로 위에서 指摘한 問題點의 모두는 아니드라도 몇個는 兼有하고 있음이 事實인만큼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따라서 이러한 點을 冷徹히 分析하야 借款業體=不實業體·問題라는 等式이 되지 않도록 大悟覺醒하여 이에 대한 對策이 早速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